

2024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5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24. 6. 27.(목) 14:00 ~ 15:10
- 장소 : 문화본부 4층 대회의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건축유산분과)

- ◆ 일시 : 2024. 6. 27.(목) 14:00 ~ 15:10
-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 참석자 (6명)
  - 위원장 : 000
  -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 배석자 : 000 과장, 000 팀장, 000 주무관, 000 주무관
- ◆ 심의안건 (총 3건)
  - 시 문화유산자료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심의 : 1건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각 설계도서 타당성 검토 : 1건
  - 시 문화유산자료 긴급보수 완료 보고 : 1건

(개회)

### ○ 000 과장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분과 제 5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사항은 총 2건이고 마지막 1건은 긴급보수 안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원구단 정문에 대해서 문화유산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내용입니다.

### ○ 사업관계자

안녕하세요? 원구단 정문 열린정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구단 정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어 있고요. 원래 조선호텔 앞쪽에 정문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1968년에 매각됐다가 현재의 위치로 2009년에 이축해서 복원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문화유산자료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2011년에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지 같은 경우는 황궁우 뒤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거기 황궁우 보호구역이 여기에 있으며 저희 대상지는 그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단 정문은 국가유산이 당해 건물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가 그 보호구역 부분을 정비해서 원구단으로 주진입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보수이력은 2011년에 한 번 포장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요. 2023년에 주변의 경계펜스를 철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 현상변경 사유는 지속적으로 2020년과 2019년 그리고 펜스 철거 등 지속적인 정비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공간이 약간 파편화되고 포장도 부분적 보수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빌딩 같은 것들로 인해서 토지가 약간 사유화되어서 이용이 불편해서 대상지 안쪽으로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대상지 안은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구단 정문 주변을 정비해서 원구단 영역이 여기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여기로 오고 원구단의 가치도 좀 더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기 위하여 지금 정비를 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내용은 담장 개방, 포장정비, 녹지대와 휴식공간 조성 그리고 경관조명이 현재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도 같이 정비하는 일이 이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이 앞쪽이 지금 원구단 앞에 있는 서울광장이고 뒤쪽이 원구단인데요. 그 앞쪽에 저희 정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문은 전체적으로 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구단 정문 같은 경우는 쉽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문 뒤쪽에서 보면 담장이 꺾어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담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문으로 사용했던 위치에 맞춰서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놨는데 현재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놔서 사실은 앞과 뒤쪽을 사람들이 보기에 분리되어 보이도록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사가 되어 있어서 진입계단으로 진입하는 게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오토바이 적치 같은 것들로 불량 경관으로 대상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획의 추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



고 있는 서울광장 부근에 열린공간을 조성하는 전체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수궁, 서울광장, 원구단까지 전체적으로 열린 녹색 정원 조성사업으로 지금 원구단 정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2023년 펜스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열린 녹색정원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지에 대한 저희의 기본방향은 원구단의 진입부를 강화해서 황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인지가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정문 부분을 조금 더 정비를 함으로써 그 주변 호텔이라든지 빌딩들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림으로써 시민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역사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향상으로 정문의 진입부 향상, 정문의 다른 것에 대해서 인지성을 향상하는 부분, 기존에 있었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이설되어 있는 정문의 가치를 조금 더 확보하는 부분,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대상지 현황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파편화된 이러한 다양한 포장들, 지금 딱 보셔도 5개 정도 이상의 포장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파편화되어 있는 포장을 정비하고 원구단 정문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담장을 철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에 있는 수목 중에 일부를 놔두고 일부는 제거를 해서 다시 정비할 계획이고요. 정비할 때는 앞쪽은 전체적으로 원구단 내부마당과 외부마당을 정비하고 양측으로 쉽게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현재 있는 무장애 램프를 정비하고 원구단 정문이 왜 이쪽으로 이설되었고 왜 지금 상태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내부에 없기 때문에 그 안내공간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대상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정비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마당에서부터 정문을 통해서 진입할 때 경사도를 6%에서 3% 정도로 낮췄던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지에는 전면에는 배롱나무 같은 것들로 식재를 하고 주변에는 오얏나무 같은 전통을 테마로 한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이고요. 지피류 같은 경우는 정면 주변 같은 경우는 초화 식재를 지향해서 정돈된 공간으로 만들고 주변에 초기조성에 강한, 초기에 식재를 많이 함으로써 초기효과를 크게 보려고 하는 지피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원구단 정문 같은 경우는 정문 내부에 현재 포장이 좀 많이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요. 그런 전돌을 재포장하거나 전체적으로 박석포장을 정비하는 계획을 하였으며, 야간 경



관 같은 경우는 외부에 비해서 내부 원구단 전체가, 여기 내부가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데가 어두운 부분인데요. 어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문화재를 부각시키는 방식의 정비를 하고 진입을 가장 강하게 보이는 왕의 길을 가장 높게 그리고 주변을 그것보다 낮게, 원구단 정문이 가장 많이 보이도록 하는 원구단의 빛을 경관조명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이게 현황이고요. 정문을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저희가 정비를 하면 이렇게 정문의 앞쪽 부분이 바뀌는 모습이고요. 후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포장으로 대상지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이게 만들고요. 앞쪽에는 무장애 동선을 만들고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경관조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 000 위원

오른쪽에 장애인 통로 무장애 램프라고 되어 있는 게 폭이 얼마나 돼요?

○ 사업관계자

1.5m입니다.

○ 000 위원

1.5m요? 그러면 휠체어 교행은 되나요?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휠체어 교행이 돼요?

○ 사업관계자

휠체어 교행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627/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5/34



- 000 위원  
안 되죠? 그러면 중간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 사업관계자  
지금 휠체어가 만나는 경우는 중간 참에서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참이 여기 아래쪽으로는 낭떠러지가 되지 않아요?
- 사업관계자  
이쪽이요?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그거 낭떠러지로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램프 내려오다가 경사로 밑이 그냥 낭떠러지가 되는데.
- 사업관계자  
거기는 저희가 안전난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 모양이 되게 웃겨질 텐데요.
- 000 위원장  
단면도는 없나요? 시뮬레이션은 정확한 게 아니니까 단면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 사업관계자  
단면은 따로 저희가 보고자료에는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굉



장히 위험할 텐데요. 장애인시설을 안 만들면 모르는데 장애인시설을 만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펜스를 치면 모양이 되게 웃겨지죠.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

그런데 저렇게 여러 번을 꺾어야 해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된 상태는 아닌 거죠?

○ 사업관계자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반영하셔야겠네요.

○ 사업관계자

네. 지금 저희가 녹지가 최대한 많이 보이는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사실은 무장애 램프 같은 경우는 주로 진행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문을 통해서 진입하는 것을 훨씬 더 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 000 위원

무장애 램프는 정문으로 못 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거를 주로 가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627/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7/34



○ 사업관계자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녹지를 저희가 평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를 경사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장

램프가 저렇게 많이 꺾이니까 무장애 램프에 장애가 생기겠네요.

○ 000 위원

램프에 장애가.

○ 000 위원장

램프에 장애가 생기겠어요.

○ 사업관계자

그러면 램프가 반듯하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 000 위원

그것은 장애인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저것을 그냥 우리 같이 쉽게 보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 000 위원장

여기는 BF심의를 안 받아요?

○ 사업관계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 000 위원

밤에도 오픈해요?

○ 사업관계자

네, 밤에도 오픈되는 공간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더 위험하겠네요. 그리고 저기가 밤에도 오픈하면 건물이 조형물 이잖아요, 저렇게 되면.

○ 사업관계자

네, 야간에는 그렇죠.

○ 000 위원

그런데 거기에 취병이 있을 이유도 잘 모르겠고 어차피 밤에도 오픈을 한 다는데 왜 굳이 취병이 있어야 하는 건지, '왜 있지? 모양으로 취병을 왜 넣었지?' 이런 것. 그다음에 식재를 이야기하셨는데 식재가 근대를 감안해서 식재를 그것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식재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근대시기를 감안해서 이런 나무를 심 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표현 하나 때문에 앞으로 저것 을 하나의 모범으로 삼는 사람들은 근대식에는 다 그것만 심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그 근거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나무가 커가면, 지금 계속 나무가 커져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고 해서 나무를 못 깎게 하 고 그러면 나무가 계속 커가면 저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근거가 약간 뭐가 이렇게... 오픈하겠다고 그러는데 뭘 오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환구단을 오픈하는 건지, 환구단의 정문을 오픈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건물을 오픈하는 건지.

○ 사업관계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000 위원

네.

○ 사업관계자

우선 취병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건물이 지장물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취병의 형태를 모티브



로 하는 조형적인 벽을 하나 설치한다는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문 쪽에서의, 원구단 정문 자체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거나 원구단 정문 주변의 포장을 통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오픈된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원구단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유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내부에 지금 식재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전통수종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근대라고 한다면 근대는 조금 더 다양한 수종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대 공간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기는 조금 더 다양한 수종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해석을 강화했을 때 이런 가는잎조팝나무 같은 조형적으로 예쁜 나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얏나무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용을 넣은 건데, 그게 확장 해석된 것도 없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근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이지 원구단 주변에 저런 나무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너무 좀 가셨어요.

○ 사업관계자

네, 확장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식재를 하는데 취병을, 취병이라는 것이 식재랑 같이 하는 게 취병이다? 약간 좀...

○ 사업관계자

저희가 취병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요. 식재를 꼭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프레임만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취병의 형태를 가져오는 거지, 취병을 갖고 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 000 위원

취병을 가장한 울타리다?



○ 사업관계자

네, 맞습니다.

○ 000 위원장

보기 싫은 것 가려주는 역할이잖아요.

○ 사업관계자

네. 저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가 전통담을 넣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취병이라고 하는 경우는 문묘 같은 데도 있는 것이어서,

○ 000 위원장

취병은 창덕궁에 있잖아요.

○ 사업관계자

묘지에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묘시설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저렇게 문이 계속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네, 현재도 개방되어 있고요.

○ 000 위원

현재도 밤에 개방되어 있나요?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

그렇군요. 밤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요.

---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627/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11/34



○ 000 위원장

아마 서울시 방침이 저기를 개방해서 열린공간으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 000 과장

예,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울광장과 연결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원구단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저게 정문인지 아는데, 결국에는 목표가 원구단을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정문의 개방감을 높이자는 것이면 보통은 원구단이 뭔지도 모를 것이고 여기가 사실은 바로 원구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거나 관심을 끌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구조적인 산책로를 구조적으로 이끈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사업의 목정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문은 개방해서 여기가 일종의 공원식으로 되면 좋지만 보통 사람들은 저기서 그냥 멈출 거거든요. 문화유산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이용하고 자꾸 가야 가치가 높아지는데 저기를 그냥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먹으러 가는 공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원구단이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공원 내에 자꾸 암시하는 것이나 설명하는 게 배치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그것은 앞쪽에 계획을 하면서 원구단에 대한 안내, 정문이 현재 이쪽으로 이전했고 원구단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설명은 넣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원구단 주변 개선이랑 역사성 회복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될 예정인데요. 그쪽으로 점점 그 계획은 확장돼서 2단계 사업에는 뒤쪽으로까지 유도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는 정문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 안부터 원구단으로 직접 들어가는 곳까지는 앞으로의 장기계획이다.

○ 사업관계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627/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12/34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000 위원

아까 정문이 왜 이쪽으로 이관되었느냐는 사실은 원구단이 이 다음에 가면 있고 어떤 의미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주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문이 이쪽에 이관됐구나.' 하는 것을 한 단계 들어와서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원구단이라는 곳의 정문인데 원구단이 어떤 곳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가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자문의견서에 보면 센터 빌딩 측면 도로변 보도의 폭을 넓혀 원구단 정문 일대 단순 통과하는 보행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사업관계자

그게 지금 이쪽 내용인데요. 여기 서울센터빌딩 이쪽에 보도가 굉장히 협소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그쪽까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써주신 겁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좁은데 정문을 개선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사업관계자

지금 원구단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인지하고, 원구단 정문을 통행로로 인지하고 다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통행로로 인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문의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하려면 이쪽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의 용역을 벗어난 상황이라서 담당자분께 그런 쪽으로 나중에 확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저 도로를 개선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이번 사업에서는 통행량을 줄이는 방법은 없고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오히려 개방이 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그렇죠.
- 000 위원  
알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현재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장  
원구단하고 정문하고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나죠?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 사업관계자  
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앞쪽이 29.4이고 뒤가 37.1이에요.
- 000 위원장  
여기 있네요.
- 사업관계자  
그래서 엄청 높이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 000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문이라고 담장을 설치한 것도 서울시인 데 담장을 없애겠다는 것도 서울시잖아요.
- 000 과장  
그렇죠.
- 000 위원  
오른편의 송례문처럼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 000 위원  
송례문처럼 만들려면 담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000 위원장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세요. 레벨 차이가 거의 8m, 9m 이상. 굉장히 원구단 자체가 웅색하죠, 지금 있는 게.

○ 000 위원

실제로 계단을 올라가야 원구단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서.

○ 000 위원장

예. 레벨 차이가 여기 보면 원구단이 플러스 37.10, 정문이 29.04니까 한 8m 정도 차이가 나요. 레벨 차이 8m면 거의 3,00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거죠. 문은 저기 밑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문이라도 개방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 000 과장

예.

○ 000 위원

화단을 다 없애버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식재를 다 안 하고 그냥 원하게 만들면 이게 그나마, 이게 식재랑 이런 화단을 복잡하게 이것저것 개방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 000 위원장

사실은 여기 전체 공간이 되게 좁은데, 거기에다 녹색을 넣으려고 이렇게 야기자기하게 넣다 보니까 더 복잡해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램프도 구불구불하게 하고 좀 그런 것도...

○ 000 위원

저는 담장을 최소한이라도 놔두는 상태에서 뭘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이고 신성한 영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담장을 저렇게 쌓아뒀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일부러 다 털고 문 자체를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서 점 주변에 공원을 만들겠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 000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문이 원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담장도 원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담장을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기에 뭐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저게 공개가 됐다고 생각을 할까? 오히려 더 널찍하게 해 줘야 공개가 되는 게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무장애 램프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있는 취병도 그렇고 식재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올까?

○ 000 위원장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으면 설계자는 나가시고 저희들끼리 토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000 위원

원래 문 위치는 어디예요?

○ 000 위원

아까 안내공간 쪽으로 좀 나와야 해요.

○ 000 위원

앞으로 더 나와야 해요?

○ 000 위원

예.





○ 000 위원

그래서 그런지 문화재와는 상관이 없이 공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 000 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저쪽에서 진행을 했던 이유도 새로운 면부터 이렇게 쪽 넓게 공원을 계속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저게 충돌하는 거예요. 저쪽에 원구단이 문화재라는 것이고 그 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서울시 시청 앞 광장이 점점 넓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청을 위한 하나의 기념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저기에다가 담장을 없애고 뭔가 자꾸를 집어넣으려고, 나무심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저기가 시청 광장에서 보행 접근이 무지 어려운 데잖아요.

○ 000 위원

그렇죠. 길을 건너야 하는 거죠.

○ 000 위원

길을 지하도로 건너야 하고.

○ 000 위원

거기 앞에 횡단보도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있는데 이 계획에 원구단이 없어요. 원구단 정문은 있는데 그 공간은 있는데 원구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목적과 조금 동떨어진 계획 같아 보이는 생각이 들거든요.

○ 000 과장

원구단이 사적이라 개인 사유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다 보니까 저희가 컨트롤을 못 하니까 아마 여기까지밖에 접근이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  
저기 올라가는 건 되게 힘들어요.
- 000 위원장  
원구단은 워낙 레벨 차이가 8m 정도 나니까 인지가 안 되죠. 가서 알지 않는 한은.
- 000 위원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 000 위원장  
조선히텔 바로 앞에 있잖아요.
- 000 위원  
조선히텔에서 내려다 보지 않는 이상 사실은 모르는 위치인데, 그것을 없애려면 접근을 높이려면 차라리 계단 방식을 바꾸든가, 아예 현격하게.
- 000 위원장  
사실은 계획을 하려면 원구단과 같이 계획을 해야 하는데, 저것만 하나까.
- 000 위원  
그러면 원구단 할 때 이것도 다시 또 건드려야 하나까요.
- 000 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요.
- 000 위원  
광장에는 넓어서 식재가 없다 보니까 공원 같은 공간이 필요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000 위원  
이상한 얘기지만 아예 정문을 위예다 올리는 게 훨씬 나올 것 같은데.



- 000 위원  
그게 훨씬 낫죠.
- 000 위원장  
위에 올라갈 공간도 없어요.
- 000 위원  
어떻게 좀 해 봐야죠.
- 000 위원  
높이를 좀 높이든가.
- 000 위원장  
그러면 하늘에 매달아야 돼요. 공간이 없어요.
- 000 위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들 수는 있겠네요.
- 000 위원  
아니면 정문부터 계단을 만들든가 좀 해서 원구단으로 약간 이렇게 경사를 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원구단의 가치가...
- 000 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공간이 얼마 안 돼요.
- 000 위원  
그렇죠? 짧죠?
- 000 위원장  
예. 짧아서 급경사가 되어야 해서 계단으로 하기가... 굉장히 웅색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제국의 상징이기는 한데, 말만 제국이지. 나라가 망해가는.



○ 000 위원

원구단 앞쪽에서 들어오는 건 여기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방,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한데 저는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좁은 공간에 조경을 하려고, 식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램프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사실 조경을 좀 안 하는 게 더 개방감이 있지 않을까. 조경에 대한 부담을, 조경을 해야 하는 조경비율 이런 건 없잖아요.

○ 000 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없죠? 그냥 설계자가 임의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 000 과장

예.

○ 000 위원장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은 000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개방을 한다면 단순하게 가는 게 워낙 공간 자체가 좁으니까 그래야 개방감이 있지 않을까. 저기에 뭘 심고 하면 개방한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저는 소현수 교수 자문도 받아서 요새 들어간 나무는 다 죽여버리고 대한제국 나무를 심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앞에 두 분 말씀에 보태면 조경가한테만 자문을 받지 말고 건축가들, 서울시 관련 건축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장

아마 공원과에서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 000 위원

아니, 이건 건축이 아니고 나무 심는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매스를 어떻게 다루고 볼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건축가의 생각을 들으면 저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훌륭한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너무 조경계획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000 과장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조경 줄이는 문제, 건축 분야에 대한 추가 문제, 아까 또 장애인시설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주신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몇 개를 해서 조건부로 하시는 방법과 아니면 한 번 더 보시는, 실시설계 중이니까 한 번 더 보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떤 게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장

어떻습니까?

○ 000 위원

저희가 잘 하자는 것이지, 못 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보는 거나 조건부나 결론은 같지 않을까요?

○ 000 과장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달아서,

○ 000 위원

조건을 많이 달아야 할 것 같아요.

○ 000 과장

지금 많이 적어놨습니다.



○ 000 위원장

어쨌든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단순해야 개방감이 있어요.

○ 000 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8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발원문에 대해서 보호각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타당성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 배석

안녕하세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담당입니다. 원래 저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설계 검토안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개운사 보호각 대응전 보수정비 지붕보수 관련해서 설계용역사와 저희하고 설계 검토승인 과정에서 이견이 계속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고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여드리고 다각적으로 의견을 검토받고자 부득이 검토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성북구청하고 설계용역사에서 같이 나와서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본 건은 제목 보시는 바와 같이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 보호각 지붕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절차대로 문화재 개요, 위치도 및 주변현황, 사업추진경위, 현황 사진, 결과 분석, 보수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개요입니다. 문화재는 현재 좌상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 000 위원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627/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22/34



그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사업관계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추진경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국고보조사업 총액사업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6월 9일에 저희가 사찰하고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 현장 자문회의를 한 번 실시했고요. 서울시에서 현장에 위원님 두 분과 나와주셨는데 그때 지붕보수 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이 때는 추녀 하부에 활주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활주 설치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침은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연목이상 해서 해체 보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연목은 10%, 선자연은 30% 교체하는 것으로 보수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체 번와보수하고 암·수키와 30% 교체, 착고기와 50%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현황 사진은 일단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한 3D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처마부의 현황 같은 경우가 추녀부하고 선자연 시작 부분이 많이 침하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면 쪽입니다. 배면 쪽에 보면 여기가 기와가 지금 처마 쪽으로 각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 기와가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붕이 꺾여 있는 부분이 부연의 뒤편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연의 뒤편리 정도가 되겠고요. 이 건물 자체가 지붕의 큰 규모에 비해서 부연의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여기 배면 쪽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D촬영 결과물인데요. 현재 보시면 수키와 등 기준으로 해서 여기 막새기와 등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보시면 좌측 부분의 처마는 그나마 덜 처진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우측 부분과 배면 쪽이 많이 처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추녀, 선자연 시작 부분이 많이 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는 배면 쪽입니다. 배면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이 열에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와가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



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인일 수 있으나, 아무튼 여기 위쪽에 수키와가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측면입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 좌측면, 전면 쪽은 그나마 양곡이 살아 있는데 배면 쪽하고 우측면 쪽은 거의 양곡이 없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활주 설치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봤는데요. 이것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활주는 추녀의 거의 끝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단의 규모나 앞쪽에 보면 계단 턱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앞쪽으로는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녀의 거의 중앙 정도에밖에 활주를 설치하더라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례인데요. 청룡사 대응전입니다. 청룡사 대응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활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면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동바리로 서포트로 이렇게 임시로 받쳐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건 공사 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여기에만 힘이 집중하고 여기 추녀만 이렇게 받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 시에는 2018년도에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때는 활주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게 청룡사 대응전인데요. 기존에 활주가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전체 완전히 해체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보수 후에는 이렇게 활주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붕 안에서 최대한 보강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수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단이 상대적으로 건물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화계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활주를 저희를 설치를 하더라도 한 이 정도 나와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보시면 건물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면도이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단면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면도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이것을 광파기로 측량을 해서 각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각도대로 하면 부연의 뒷길이가 굉장히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면 쪽에서 보시면 수키와 등이 꺾인 부분이 부연의 뒷길이, 끝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건물 자체가 주심에서 종도리 그다음에 주심에서 처마끝, 이게 처마끝이 더 출목은 있지만 더 많이 내민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마 쪽이 많은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횡단면도입니다. 양시도이고요. 저희가 보수계획을 잡아봤는데요. 지금 부연 뒷길이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누름목을 설치해서 눌러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녀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누름목을 끼워서 결부를 해서 잡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은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은 했었는데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듣고 싶어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됐고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이 건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 사업관계자

85년도입니다.

○ 000 위원장

1985년?

○ 사업관계자

네.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아까 이견이 있다는 건 뭐예요?

○ 사업관계자

활주만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의견이 내려와서요. 지붕보수는 제외하고요. 사찰에서는 활주만 설치해서 이게 어떻게, 처마가 이렇게 꺾이고 그랬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000 위원장

설계자한테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나가시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000 위원  
1985년에 건축이 됐다고 하면 그때 누가 했는지 아세요?
- 사업관계자  
시공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편수가 누구였는지.
- 사업관계자  
기둥 옆에 표 하나만 붙여 있는데요. 1985년도에 중건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보니까 솜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 사업관계자  
구조적으로 불안한 구조이기는 합니다.
- 000 위원장  
영성하기 그지 없어요. 건물만 커요. 크고, 주심도리에서 빠진 게 한 3m가 넘죠?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 사업관계자  
주심하고 여기 처마 거의 한 1m 가까이 됩니다.
- 000 위원



아니, 비용이요.

○ 사업관계자

비용이요? 활주만 설치하면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1,00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지분을 저희 계획안대로 다 해체보수하게 되면 약 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 000 위원

청룡사 대응전은 더 들었겠네요?

○ 사업관계자

더 들었습니다. 거기는 한 거의 20억 가깝게.

○ 000 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000 과장

퇴장하시면 됩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000 위원장

제가 저기 두 번 갔다 왔는데요. 저게 사실 안에 문화유산이 뭐죠?

○ 000 과장

아미타여래좌상.

○ 000 위원장

좌상이죠?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627/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27/34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 000 과장

예, 좌상, 불상입니다.

○ 000 위원장

전에 자기 돈으로 1985년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문화유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저거를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건물 자체가 목수가 솜씨가 없는 목수가 지은 것 같아요. 엉성해요. 그런데 크기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주심도리에서 빠진 게 도면 보니까 한 3.25m 정도 빠져서, 제가 저런 큰 사찰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건물도 다 활주를 받쳤거든요. 큰 건물에 활주 안 받친 것은 궁궐 건물밖에 없어요. 활주를 받치면 저게 캔틸레버 한 3.25m 정도 내밀었으니까 지붕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공사를 해도 또 처져요. 그래서 활주 받치는 게 구조적으로 가장 간명한데 스님이 싫다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 000 위원

그런데 이걸 간단한 문제네요. 7억 원을 누가 주느냐.

○ 000 위원장

여기에 달라는 거예요.

○ 000 위원

여기는 문화재도 아닌 거에다 왜 7억 원을 줘요?

○ 000 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 보수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려고, 내년에 하려고, 내년에 돈을 받으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설계비는 이미 3,000만 원을 받아서 이 설계도, 받아가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 배석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2023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월이 돼서 2024년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저희가 2022년에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2022년 당시에 현장에 위원님들 모시고 나갔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정면 끝부분이 약간씩 처지는 게 육안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게 엄청 심하다거나 당장 무너질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처마가 워낙 길게 나와 있다 보니 좀 처지는 것 같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찰에서 요청하셨던 것은 그때 공사비를 7억 넘게 요청하셨던 건데, 당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일단 계측을 해보자.’ 물론 한옥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크게 의미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처지는 부분이 있다면 계측기를 달아서 이게 혹시 구조안전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다른 부분을 확인,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확인하면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안전진단으로 올렸는데 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설계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비 3,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설계에서 저희가 승인하는 금액대로 공사비가 확정되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그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대 예산을 신청하느냐, 7억대의 예산을 신청하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원래 이것도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굳이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고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설계하시는 입장에서 성의 있게 3D 스캔이라든지 드론 띄워서 다시 한 번 작업을 해 보시고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요청을 하셔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부에서 검토하고 끝내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니 의견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 보자 해서 한번 상정한 것입니다.

○ 000 위원장

돈은 국가유산청에서 주겠죠. 보물이니까, 저 불상이 보물이니까.

○ 000 위원

불상이 보물인데 이걸 보호각인데,

○ 000 위원

심지어는 이게 있던 대방을 없애고 불전을 지은 거잖아요.

○ 000 위원

대방 놔뒀으면 문화재가 됐겠네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 000 위원

그렇죠. 원래 대방이었으면 이게 문화재인 거죠. 원래 대방이 있던 자리에 불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호각인데, 보호각을 수리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 000 위원

이건 좀 어렵겠네요.

○ 000 과장

위원회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건은 된다, 안 된다 의견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 배석

의견을 주시면 그것 갖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냥 활주하는 것으로, 저것 저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 000 위원

그런데 기와는 해야 하잖아요.

○ 배석

기와를 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부 교체를 하게 되면 내부,

○ 000 위원장

활주를 세우게 되면 일부 기와 고르기를 해야겠죠. 좀 들면 저게 약간 기와가 삐끗하니까 그것은 그때 설계하면서 다 나오는 거니까요.

○ 000 위원

그때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러니까 문제의 요점은 활주를 받칠 것이냐, 왜냐하면 설계자 말이 부연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목수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부재를 다 갈아야 해요. 그냥 누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 000 위원

새 건물을 짓는 거죠.

○ 000 위원장

부연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서까래까지 지붕 구조를 다 갈아야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문화재도 아닌데, 문화유산도 아닌데.

○ 000 과장

아니면 2022년도에 얘기한 것처럼 활주를 설치해 놓고 계측을 한번 해 보자는 방식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한 1년, 2년 계측을 해 보자.’ 이런 방식이 되나 모르겠어요.

○ 배석

아까 대기하면서 설계자하고 얘기를 몇 가지 나눴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양쪽에서 의견을 냈던 것을 제외하고 다른 의견 혹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러면 지금 설계비 예산 내려온 것을 다시 국가유산청에서 협의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계측 비용으로 돌려서 이것을 다시 계측을 해 보고 그 결과에 유의미한 수치가 확인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설계하고 가는 방안이 있고요.

○ 000 위원장

그런데 계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배석

일단은 지금 육안으로는 처진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까요.

○ 000 위원장

처지기는 처졌죠. 건축물이라는 게 특히 많이 내민 전통건축물은 다 처져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요. 아무리 잘 지어도 나무가 마르고 수축하고 하면서 다 처져요. 그런데 처지는 건 당연히 다 처져 있다고요. 실측해 보면 지금 여기 근정전이나 다 처져 있어요. 계측하는 것은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다 이거죠. 다 처지니까요.

○ 배석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안은 일단은 이 처짐이 육안으로 좀, 그러니까 기와 이격이나 이런 게 많이 확인되는 배면 위주로만 부분적인 보수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 000 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주를 받치면 구조가 안정이 되잖아요. 캔틸레버가 길이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받치다 보면 기와를 좀 뜯어야 해요. 뜯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수를 하게 되죠. 활주를 받친다고 그게 기계적으로 딱딱 받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뜯어야 하거든요. 위에를, 활주를 받치기 위해서는. 들리려면 또 이게 무슨 기와 같은 것이 그냥 유연하게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유압 기계로 들겠지만. 하면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자잘하게 보수를 해야 해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활주를 받치라고 그러면 받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수리를 다 해야 해요.

○ 000 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계측 비용으로 원래 신청을 했잖아요, 구에서는.

○ 배석

예.

○ 000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닌가. 계측을 해 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 000 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활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저게 문화유산 자체가 아니고 보호각이고 그리고 활주를 받치는 게 절집에서 일반적이고 어디가 나 다 받쳐 있어요. 안 받친 집 거의 없습니다. 국보나 보물이나 다 받쳐 있어요.

○ 000 과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활주 설치 부분만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전입니다. 보고 건입니다. 아까 보신 원구단 정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진행한 건이 있어서 담당주무관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석

긴급보수 담당자입니다. 2월에 지나가던 행인이 기와가 낙하되는 것을 보고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긴급보수신청이 바로 나간 부분이 배면 지붕 양성미장이 들떠서 떨어진 것이니까 여기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용마루 및 내림마루 그리고 해체 후 재설치를 하고 또 기와 일부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보수는 끝났어요. 사진을 보시면 전체 위애가 시행 전의 사진이고 시행 후가 밑에 있는 상세사진을 보면 끄트머리 떨어진 것 설치가 되었고 마루 부분 시행이 되었고요. 용마루하고 기와 일부 고르기가 다 끝나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 000 위원

사람은 안 다치고요?

○ 배석

안 다쳤습니다.

○ 000 과장

네. 기와가 갑자기 떨어져서 이건 안전 문제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심의 검토 건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627/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34/34

Email : [sokgisa88@daum.net](mailto:sokgisa88@daum.net)

